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

하 지 영*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 및 대전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 213명의 어머니였으며, 유아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과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남아의 어머니일수록,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중 부모지도 신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반면, 자녀습득 신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중 자녀습득 신념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녀습득 정서지도 신념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Key Words) : 정서성(Emotionality)

정서지도 신념(Beliefs about Emotional Guidance)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 서론

양육스트레스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으로(Abidin, 1990), 매일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어느 정도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정상적인 부모역할의 일부로 불

*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jiyoha@wsu.ac.kr)

수 있다(Deater-Deckard & Scarr, 1996; Rodd, 1993).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들에 비해 경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일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누적은 큰 스트레스 사건보다 오히려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부모-자녀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Cmic & Greenberg, 1990).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역기능적인 양육행동과 관련되기 때문이다(Abidin, 1990, 1992; Rodgers, 199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는 한편, 애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덜 반응적인 경향이 있다(민하영, 이영미, 2009; Cmic & Greenberg, 1990; Deater-Deckard & Scarr, 1996; Yavuz, Selcuk, Corapci, & Aksan, 2017). 신지연(2011)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유아에게 신체적 체벌이나 부정적인 언어 상호작용, 비논리적 훈육과 같은 양육행동을 사용하게 되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기질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서석원, 우수경, 2016), 교육기관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자현, 위영희, 2012).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아의 기질적인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Abidin, 1990; Belsky, 1984).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어머니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더 많은 일거리를 주게 되며,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Coplan, Bowker, & Cooper, 2003; Gelfand, Teti, & Fox, 1992; Östberg, & Hagekull, 2000). 특히 기질의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부정적 정서성은 까다로운 기질의 핵심적인 부분으로(Paulussen-Hoogeboom, Stams, Hermanns, & Peetsma, 2008; Prior, 1992), 두려움이 많으며, 화를 잘 내고, 부정적인 기분을 나타내며, 쉽게 달래지지 않는 것과 같은 특성으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1998; Sanson, Hempill, & Smart, 2004). 부정적 정서성은 다른 기질 특성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신지연, 2011).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민희, 문혁준, 2007; 김송이, 최혜영, 2007; Berryhill, Soloski, Durtschi, & Adams, 2016; McBride, Schoppe, & Rane, 2002).

최근에는 정서성을 하나의 차원으로 보기 보다는 부정적 정서성과 긍정적 정서성의 두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부정적 정서성과 긍정적 정서성을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Zentner & Bates, 2008).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부정적 정서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데 반해 긍정적 정서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Fredrickson, 1998). 그러나 긍정적 정서성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인 자원을 형성한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Fredrickson, 2001). 또한 긍정적 정서성을 접근성의 행동(approach behaviors)과 관련된 정서의 경향으로 보기도 하는데(Zentner & Bates, 2008), 무엇인가에 접근하고 탐색하기 위해 흥미와 열의를 가지며, 긍정적 기대나 새로움에 대한 추구, 웃음과 미소 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정서성은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i, Repetti, & Sperling, 2016; Sallquist, Eisenberg, Spinrad, Gaertner, Eggum, & Zhou, 2010). 그러나 지금까지 긍정적 정서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부족으로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부족하지만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 중에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연구(Crockenberg, 1986; Crockenberg & Leekers, 2003; Paulussen-Hoogbeem et al., 2008)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다고 해서 어머니의 양육이 항상 더 힘들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 간의 관계에서 조절하는 변인이 있음을 시사한다(신지연, 2011). 예를 들어, 자녀의 성별(Paulussen-Hoogbeem et al., 2008)이나 어머니의 특성, 사회적 지지(Crockenberg, 1986; Crockenberg & Leekers, 2003) 등이 조절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조절 변인 중에서 어머니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bidin(1992)은 아동의 특성 자체보다 부모의 인지적 특성이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날 것인지는 부모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인지적 평가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사이에서 조절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Abidin(1992)은 부모의 인지적 평가란 부모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양육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있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면 스트레스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성 기질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과정에서 Abidin(1992)이 제시한 어머니의 인지적 평가 측면으로서 정서지도 신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Gottman과 Katz, Hooven(1996)은 정서에 대한 신념을 상위정서(meta-emo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인식하고 자녀의 정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격려하거나 좌절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Halberstadt 등(Halberstadt, Dunsmore, Parker,

Beale, Thompson, & Bryant, Jr., 2008)은 정서신념이란 정서에 대한 가치(value), 자녀가 정서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control), 자녀의 정서 발달과정(developmental process), 정서에 대한 지도(guidance), 정서를 통한 자녀와의 관계(relational) 등에 대한 신념을 다각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어머니의 정서 관련 신념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정서 또는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남궁령, 2015; Dunsmore & Karn, 2001, 2004). 그러나 신념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에 갖게 되는 인지적인 과정으로,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관련 태도나 행동 등에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어머니의 신념이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Halberstadt 등(2008)이 제시한 다양한 정서신념 가운데 정서지도(guidance)에 대한 신념은 다른 신념들에 비해 부모 자신의 정서표현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가장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신주혜, 정윤경, 2013),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자녀가 보이는 정서성 기질에 대해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신념은 부모에게 부담감을 주기도 할 것이고, 반대로 자신감을 주기도 할 것이다.

부모의 정서지도 신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정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지도 신념을 높게 갖는 반면,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정서를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습득 신념을 높게 갖기도 한다.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녀에게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정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Dunsmore & Karn, 2001, 2004). 반면 자녀습득 신념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한편, 자녀를 지지하는 반응을 적게 하였고,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주혜, 정윤경, 2013; Halberstadt, Dunsmore, Bryant, Jr., Parker, Beale, & Thompson, 20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가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자녀의 정서성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신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로서 자신의 행동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더 지지적이며, 스트레스가 적다고 보고한 선행연구(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 2012; Stevens, Jr., 1984)는 자녀의 정서 지도와 같은 문제해결의 순간에 부모 자신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조은정, 박형신, 2015). 또한 부모가 자녀의 지도에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양육신념을 갖는 것은 자녀의 발달의 방향을 안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만족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할 수 있다(송승민, 송진숙, 2007).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서지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에 대한 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편, 유아의 성별과 연령은 유아의 정서성이나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서성의 경우 비교적 생애 초기부터 성차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에 비해 긍정적 정서를 덜 나타내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 그러나 유아기에는 성별에 따라 정서성, 특히 부정적 정서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고(권연희, 2012; 임현주, 2015; 허혜경, 2013), 오히려 여아가 남아에 비해 슬픔과 같은 일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성미영, 2006; Smiley, Tan, Goldstein, & Sweda, 2016)도 있어 그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생애 첫 5년 동안 정서성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김소영과 홍세희(2015)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자녀의 정서적 예민성이 심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반면, 연령에 따라 정서성 기질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박인숙, 2014; 성미영, 2006)도 있어 이 역시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경우에는 유아의 성별과 연령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일부 보고되어 있다(Dunsmore & Karn, 2004).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남아보다 여아에게 사회적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여아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등 도덕적인 추론을 많이 하도록 한다는 선행연구(Park & Cheah, 2005)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가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Chaplin, Cole, & Zahn-Waxler, 2005). 따라서 유아의 성별이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유아의 연령에 있어서는 유아기 내에서의 차이보다 유아기와 이후 아동기의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기에는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이 유아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반면(최연희, 조복희, 2013; Dunsmore & Karn, 2001, 2004), 아동기에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사회화를 위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지도에 많이 개입할수록 아동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astro, Halberstadt, Lozada, & Craig, 2015). 즉 유아기는 이후의 발달 단계에 비해 어머니의 정서지도 역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어머니가 정서지도에 대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여아에 비해 남아의 어머니가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아, 2005; Scher & Sharabany, 2005). 어머니들은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남아의 행동을 바로 잡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여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남혜순, 2003).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지만, 자녀의 까다로운 기

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존적이었던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율성을 갖게 되므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행동이 더 문제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Deater-Deckard & Scarr, 1996). 또한 유아기는 본격적인 사회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동규범을 가르쳐야 하므로 자녀에게 순종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통제전략이 중요해지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Paulussen-Hoogbeem et al., 2008). 부모는 자녀의 발달 단계마다 다른 경험을 하며, 특히 유아기의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 발달이나 사회화의 지도와 같은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므로 이 시기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 또는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의 보고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자녀양육태도를 나타내기 쉽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리진, 윤종희, 2000; 편은숙, 2004).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기현, 조복희, 2000; 김리진, 윤종희, 2000),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모인 경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높게 인식하고,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면서 양육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신나리, 안재진, 2014; 이운주, 진미정, 2013). 또한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경제적, 정보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양육스트레스가 더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박영아, 2005). 그러나 어머니와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권정운, 정미라, 박수경, 2012; 김미숙, 문혁준, 2005; 차삼숙, 신유림, 2005)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변인들과 유아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취업여부와 가정의 월수입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떠한 정서지도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성을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으로 구분하고,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어떠한 지도 신념을 갖고 있는지와 같은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정서적 기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것을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로 인식하기보다는 유아의 정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인식과 신념을 재점검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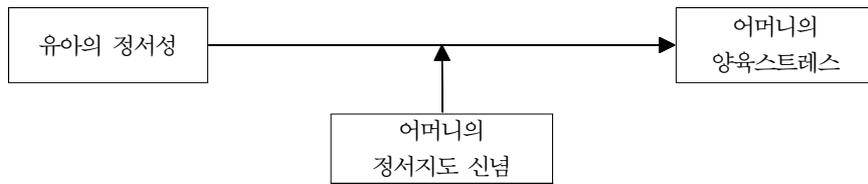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 및 대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 213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연령은 만 3세 57명(26.8%), 만 4세 70명(32.9%), 만 5세 86명(40.4%)이었으며, 성별은 남아 107명(50.2%), 여아 106명(49.8%)이었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외동 42명(19.7%), 첫째 54명(25.4%), 둘째 93명(43.7%), 셋째 이상 24명(11.3%)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이하 10명(4.7%), 31~35세 65명(30.5%), 36~40세 106명(49.8%), 41세 이상 32명(15.0%)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 44명(20.7%), 전문대학 졸업 40명(18.8%), 4년제 대학 졸업 86명(40.4%), 대학원 이상 40명(18.8%)이었다. 취업모는 115명(54.0%), 비취업모는 98명(46.0%)이었으며,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 10명(4.7%), 201~400만원 89명(41.8%), 401~600만원 71명(33.3%), 601~800만원 21명(9.9%), 801만원 이상 17명(8.0%)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

(N=213)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유아 연령	만 3세	57	26.8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44	20.7
	만 4세	70	32.9		전문대학 졸업	40	18.8
	만 5세	86	40.4		4년제대학 졸업	86	40.4
유아 성별	남아	107	50.2		대학원 이상	40	18.8
	여아	106	49.8		무응답	3	1.4
유아 출생순위	외동	42	19.7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모	115	54.0
	첫째	54	25.4		비취업모	98	46.0
	둘째	93	43.7	가정의 월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10	4.7
	셋째 이상	24	11.3		201~400만원	89	41.8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10	4.7		401~600만원	71	33.3
	31~35세	65	30.5		601~800만원	21	9.9
	36~40세	106	49.8	801만원 이상	17	8.0	
	41세 이상	32	15.0	무응답	5	2.3	

2. 측정도구

1) 유아의 정서성

유아의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othbart 등(Rothbart, Ahadi, Hershey, & Fisher, 2001)이 개발한 유아 기질 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BQ)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원래 3~7세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소 유아가 나타내는 행동에 근거하여 어머니가 각 문항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총 195문항의 도구이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성과 관련된 문항을 선택하여 번안, 수정하여 총 43문항으로 구성된 권연희(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성은 분노/좌절의 표현과 관련된 11문항, 두려움의 표현과 관련된 10문항, 슬픔의 표현과 관련된 11문항의 총 32문항으로 구성되며,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금방 화낸다”, “좋아하는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없어지면 매우 슬퍼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긍정적 정서성은 미소/웃음의 표현과 관련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자 놀이하면서도 잘 웃는다”, “잘 낄낄대며, 웃기는 행동을 잘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본 척도는 어머니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 평정하는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화를 잘 내고, 두려워하며, 잘 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이 강한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정서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미소나 웃음을 많이 보이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 정서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정서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긍정적 정서성 .753, 부정적 정서성 .862이었다.

2)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Halberstadt 등(2008)이 개발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 신념 질문지(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Questionnaire: PBACE)를 번안, 수정한 신주혜(20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원래 정서의 가치, 통제, 발달과정, 지도, 관계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발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신념인 ‘지도’ 영역을 사용하였다. ‘지도’ 영역은 부모지도 9문항, 자녀습득 8문항으로 구성된다. ‘부모지도’는 자녀의 정서를 지도하는 책임이 부모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신념으로 “아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며, ‘자녀습득’은 유아 스스로 정서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는 신념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정서지도 신념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6점까지 평정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와 관련된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지도 신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모지도 신념 .894, 자녀습득 신념 .849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Scale: PSS)를 사용하였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척도의 하위영역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취업모에게만 해당되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영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부모역할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디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는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904,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910, 전체 .942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관련된 문헌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유아교육전공 교수 1인과 아동학전공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결과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용어와 어머니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1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완성된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경기 및 대전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에게 본 연구의 의도를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은 6개 어린이집과 1개 유치원을 선정하였다. 해당 기관의 만 3-5세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내용 및 설문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설문 참여에 대해 동의한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29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가운데 22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어 74.8%의 수거율을 나타내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3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별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방식에 따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 중심화하고 두 변인을 곱하여 상호작용 변인을 생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iken과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 위와 아래 집단으로 구분한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순회귀선의 기울기를 산출하였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p < .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전체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성별($r=-.14, p<.05$)과 연령($r=-.15, p<.05$), 어머니의 연령($r=-.16,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여아에 비해 남아일수록,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14, p<.05$), 어머니의 학력과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16, p<.05$). 즉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8, p<.001$),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r=.39, p<.001$),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32, p<.001$)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나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져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과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14, p<.05$), 전체 양육스트레스($r=-.15, p<.05$)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낮으며, 전체적인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r=.14, p<.05$),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18, p<.01$), 전체 양육스트레스($r=.17,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N=213)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성별 ¹⁾	1												
	2. 연령	.03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3. 연령	.03	.20**	1										
	4. 학력 ²⁾	.13	-.19**	.07	1									
	5. 취업여부 ³⁾	-.08	-.02	-.04	-.05	1								
유아의 정서성	6. 가정의 월수입	.02	-.00	.14*	.42***	-.06	1							
	7. 긍정적 정서성	-.02	.01	.04	.16*	-.06	.06	1						
	8. 부정적 정서성	-.03	-.06	-.14*	.01	-.10	.06	.09	1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9. 부모지도 신념	.03	-.01	.08	.00	-.13	.11	.07	-.07	1				
	10. 자녀습득 신념	-.03	-.04	-.00	.04	-.05	-.13	.04	.02	-.25***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11.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5*	-.15*	-.15*	.13	.01	-.00	-.06	.39***	-.13	.14*	1		
	12.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0	-.13	-.15*	.08	.03	-.03	-.01	.32***	-.14*	.18**	.73***	1	
	13. 양육스트레스 전체	-.14*	-.15*	-.16*	.11	.05	-.02	-.04	.38***	-.15*	.17*	.93***	.93***	1

* $p < .05$, ** $p < .01$, *** $p < .001$

1) 성별은 더미변인으로 처리함(남아=1, 여아=2).

2) 학력은 더미변인으로 처리함(고등학교 졸업=1, 전문대학 졸업=2, 4년제대학 졸업=3, 대학원 졸업=4).

3) 취업여부는 더미변인으로 처리함(취업=1, 비취업=2).

2.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조절회귀분석 방식을 사용하였다. 우선 독립변인인 유아의 정서성과 조절변인인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을 평균중심화하고, 두 변인을 곱하여 상호작용 변인

을 생성하였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인인 유아의 정서성을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합한 양육스트레스 전체 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유아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의 경우 1.732, 부정적 정서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의 경우 1.698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회귀 현상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확인한 결과 1.001~1.147의 분포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절효과의 분석에서는 상호작용 변인이 적절한 절차로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화계수(β)가 아닌 비표준화계수(B)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Aiken & West, 1991).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인을 투입한 1단계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6%인 것으로 나타났다($F=4.20, p<.01$).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B=.12, p<.05$)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9%로 증가하였다($F=3.53, p<.01$).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연령($B=-.02, p<.05$)과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B=.14, p<.05$)이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1%로 나타났다($F=3.02, p<.01$). 즉 유아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가운데 자녀습득 신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는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

(N=213)

단계	구분	B	SE	β	t	R ²	ΔR^2	F
1단계	유아의 성별	-.18	.10	-.13	-1.90	.06	.06	4.20**
	유아의 연령	-.11	.06	-.12	-1.74			
	어머니의 연령	-.02	.01	-.14	-1.96			
2단계	유아의 성별	-.17	.10	-.12	-1.82	.09	.03	3.53**
	유아의 연령	-.10	.06	-.12	-1.72			
	어머니의 연령	-.02	.01	-.13	-1.85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	-.03	.07	-.03	-.44			
	정서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	-.11	.08	-.10	-1.43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	.12	.06	.14	2.01*			
3단계	유아의 성별	-.16	.10	-.11	-1.71	.11	.02	3.02**
	유아의 연령	-.10	.06	-.12	-1.71			
	어머니의 연령	-.02	.01	-.14	-2.00*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A)	-.06	.07	-.05	-.77			
	정서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B)	-.10	.08	-.09	-1.22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C)	.14	.06	.17	2.35*			
	A×B	-.02	.11	-.01	-.14			
A×C	-.15	.09	-.12	-1.69				

* $p < .05$, ** $p < .01$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통제변인을 투입한 1단계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6%인 것으로 나타났다($F=4.20$, $p < .01$).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B=.37$, $p < .001$)과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가운데 자녀습득 신념 ($B=.12$, $p < .05$)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21%로 증가하였다($F=9.22$, $p < .001$).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유아의 연령($B=-.10$, $p < .05$)과 부정적 정서성($B=.35$, $p < .001$),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B=.12$, $p < .05$), 그리고 부정적 정서성과 자녀습득 신념의 상호작용 변인($B=.19$, $p < .05$)이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F=7.82$, $p < .001$). 즉 유아가 어릴수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정서

에 대해 자녀습득 신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지도 신념 가운데 자녀습득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 (N=213)

구분	구분	B	SE	β	t	R ²	ΔR^2	F
1단계	유아의 성별	-.18	.10	-.13	-1.90			
	유아의 연령	-.11	.06	-.12	-1.74	.06	.06	4.20**
	어머니의 연령	-.02	.01	-.14	-1.96			
2단계	유아의 성별	-.16	.09	-.11	-1.80			
	유아의 연령	-.09	.06	-.11	-1.66			
	어머니의 연령	-.02	.01	-.08	-1.31	.21	.15	9.22***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37	.07	.35	5.58***			
	정서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	-.09	.07	-.08	-1.24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	.12	.06	.14	2.14*			
3단계	유아의 성별	-.14	.09	-.10	-1.63			
	유아의 연령	-.10	.06	-.11	-1.78*			
	어머니의 연령	-.02	.01	-.09	-1.34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A)	.35	.07	.34	5.43***	.24	.03	7.82***
	정서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B)	-.10	.07	-.09	-1.33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C)	.12	.06	.14	2.23*			
	A×B	-.04	.09	-.03	-.38			
	A×C	.19	.08	.15	2.34*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조절변인인 자녀습득 신념을 평균중심화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 위와 아래 집단으로 구분한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순회귀선의 기울기를 산출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습득 신념이 높은 경우 회귀선의 기울기는 .54($p < .001$)이었으며, 자녀습득 정서 신념이 낮은 경우 회귀선의 기울기는 .23($p < .05$)로 자녀습득 신념이 높은 경우의 기울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녀습득 신념이 낮은 집단 또는 높은 집단에 따라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두 집단 간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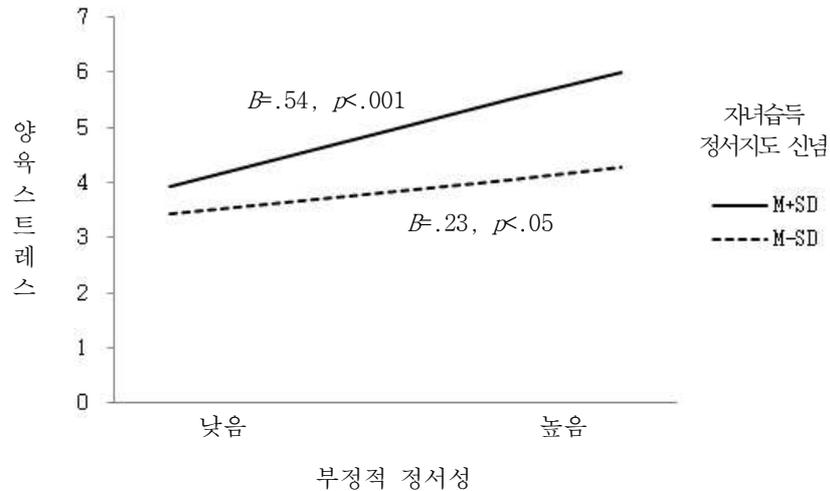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지도(자녀습득)신념의 상호작용 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이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에 비해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남혜순, 2003; 박영아, 2005; Scher & Sharabany, 2005)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여아에 비해 활동성이 높은 남아를 양육하는 데 주의가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영아, 2005). McBride 등(2002)은 부모들이 어머니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과 같이 반대되는 성의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도전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아의 어머니에 비해 남아의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더 높게 느낀다는 본 연구의 결과도 어머니가 자신과 일치되는 성의 자녀보다 반대되는 성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유아기 초반은 이전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자율성이 점차 증가하여 부모의 의도와는 다른 자기주장을 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의 한계를 검증해 보려 하게 되어(이주옥, 2008)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성별 및 연령과 정서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유아의 성별과 정서성 간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권연희, 2012; 임현주, 2015; 허혜경, 2013)도 있고,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정적 정서는 높은 한편 긍정적 정서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거나(Weinberg et al., 1999), 여아의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성미영, 2006; Smiley et al., 2016). 이와 같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정서성과 같은 기질은 생애초기부터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이며, 생물학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Buss & Plomin, 1984), 환경 또한 기질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Goldsmith, Lemery, Buss, & Campos, 1999)을 고려할 때, 정서성에서 나타나는 성차나 연령차보다는 개인차에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에서도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신념이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외의 요인과 더 관련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념이란 어머니 개인의 인지적 특성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특성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자녀양육태도를 나타내기 쉬우므로 양육스트레스가 많다고 한 선행연구(김리진, 윤종희, 2000; 편은숙, 2004)의 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 취업여부, 가정의 월수입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연령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보다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을 더 높게 인식하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생물학적인 특성이라고 볼 때 어머니의 연령이나 학력에 따라 자녀의 정서성이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어머니의 연령이나 학력에 따라서 자녀의 기질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김민희, 문혁준, 2007; 김송이, 최혜영, 2007; Berryhill et al., 2016; McBride et al., 2002)의 결과를 대체로 지지하였다.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의 경우 감정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어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육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여기게 된다(김송이, 최혜영, 2007; Sheeber & Johnson, 1992). 선행연구에 따라서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와 같은 까다로운 기질을 가졌을 경우 부모는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을 감당해야 하므로 자녀의 행동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한편, 부모역할과 관련된 일반적인 스트레스와는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김민희, 문혁준, 2007; Coplan et al., 2003). 또 다른 연구(신지연, 2011)에서

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자녀의 행동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 모두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전반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긍정적 정서성을 가진 유아는 부모로부터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Bai et al., 2016; Sallquist et al., 2010)이 보고되어 있지만, 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아영, 박애경, 2009)도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같이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양육을 어렵게 느끼도록 하는 상황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보다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녀습득 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부모지도 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자녀습득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발달은 타고 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치고 바로 잡기보다는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성숙주의와 관련이 있다(안지영, 박성연, 2002). 또한 자녀가 스스로 정서를 학습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발달적으로 적절한 기대를 하지 못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부모-자녀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Halberstadt et al., 2013).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자녀가 스스로 정서를 학습하도록 기대하는 어머니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의 정서에 대해 부모가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되기 때문에, 양육과제를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부모는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지각하게 되고(Coleman & Karraker, 1998) 이는 결국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의 회피(Jarvis & Creasey, 1991)나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는 전략의 실패(Middleton, Scott, & Renk, 2009)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 역시 자녀의 정서를 지도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중 자녀습득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이 낮을 경우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나타내는 회귀선의 기울기(B)가 $.23(p<.05)$ 인데 반해, 어머니의 자녀습득 신념이 높을 경우에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낮음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나타내는 회귀선의 기울기(B)가 $.54(p<.001)$ 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더라도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이 낮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습득 신념도 높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로 하여금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자녀의 정서적 상황에 대해 적절히 개입하기 어렵게 한다(여은진, 이경옥,

2011). 그러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를 두었다고 지각하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지도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을 가지는가는 그 상황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만들기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덜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스트레스가 많다는 선행연구(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 2012)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녀가 분노나 좌절, 두려움, 슬픔 등의 정서를 강하게 나타내는 성향을 가졌을 경우 어머니가 지도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녀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므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 상황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중 부모지도 신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지도해야 한다는 신념이 높은가 또는 낮은가에 따라서는 유아의 정서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것에 대해 자녀가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는 신념이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적절한 지도가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성을 나타낼 때, 어머니 스스로 자녀의 정서를 지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자녀의 정서를 지도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정서를 지도하는 부모의 역할이란 우선 자녀의 정서적 상황에 대해 정서를 지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적절한 지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서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정서지도를 어려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신주혜, 정윤경, 2016)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감정코칭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정서지도에 대한 자신감, 정서의 표현과 반응, 양육효능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백승선, 안연경, 광경화, 2017; 서숙경, 김은경, 2012; Wilson, Havighurst, & Harley, 2012).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부모교육에 부모의 신념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부모에게 자녀의 정서를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잘 지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편, 자녀를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키워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서의 표현과 인식, 조절 등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승은, 2011; 최은숙, 2002)인 유아기의 정서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중 자녀습득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지만,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어떠한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다(Zentner & Bates, 2008). 긍정적 정서성이 낮다는 것은 웃음과 미소 등의 표현이 적은 것을 의미하지만,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것은 분노, 좌절, 두려움, 슬픔 등의 표현이 강렬한 것으로 어머니로 하여금 더 주의를 끌게 만들며 대처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신지연, 2011).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도 중요하지만, 부정적 정서성에 대해 어머니가 보다 잘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박인숙, 201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결국 자녀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머니가 스트레스의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는 유아의 정서성, 특히 부정적 정서성이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신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의 고유한 특성뿐 아니라 이를 지각하고 평가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기질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5)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정서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기질 가운데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질은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선천적인 부분으로 여겨져 왔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들에 근거해 볼 때(장유진, 이강이, 2014; Buss & Plomin, 1984; Goldsmith et al., 1999),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상호교류모델의 관점(Sameroff, 1975; Sameroff & Mackenzie, 2003)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의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의 과정뿐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과정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회성의 자료수집에 근거한 횡단연구로서 변인들 간의 인과성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을 통해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 관련 신념, 양육스트레스 등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모두 어머니의 보고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특성이 어머니 자신과 관련된 신념과 스트레스뿐 아니라 유아의 정서성을 측정하는 데에도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녀의 정서성과 그와 관련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에 초점을 두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지만, 어머니가 가진 신념이나 인식이 어떻게 정서지도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행동이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에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노성향, 2014)와 아버지의 정서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자녀의 정서적 기질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도할 것인가와 관련된 신념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연희(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2(2), 29-48.
- 권정윤, 정미라, 박수경(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 탐색. 유아교육학 논집, 16(3), 143-160.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기현, 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김리진, 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미숙, 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민희, 문혁준(2007).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교육, 보육기관에서의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9), 27-36.
- 김소영, 홍세희(2015).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정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유아교육연구, 35(4), 301-317.
- 김송이, 최혜영(2007).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대한가정학회지, 45(8), 1-11.
- 김아영, 박애경(2009). 갈등상황에서 어머니 반응에 대한 유아의 언어적 표상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9(4), 179-196.
- 남궁령(2015).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심리적 건강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6), 49-74.

- 남혜순(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아동교육, 12(2), 121-135.
- 노성향(2014).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 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4(3), 45-59.
- 민하영, 이영미(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애정-거부적 양육 행동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03-213.
- 박영아(200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유아교육연구, 8, 97-113.
- 박인숙(2014). 유아의 기관적응과 어머니 양육효능감 관계에서 유아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4(4), 195-213.
- 백승선, 안연경, 광경화(2017).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7(2), 1-24.
- 서석원, 우수경(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심리적 특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0(2), 519-539.
- 서숙경, 김은경(2012). 감정코칭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6(1), 95-109.
- 성미영(2006).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과 유아의 정서성, 정서지식, 사건지식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5), 59-68.
-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0(12), 165-183.
- 송승민, 송진숙(2007). 부모의 양육신념 및 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3-7세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5), 933-944.
- 송연숙, 김영주(2007). 양육신념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연구. 아동교육, 16(4), 107-117.
- 신나리, 안재진(2014).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5(5), 135-154.
- 신주혜(2015). 한국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주혜, 정윤경(2013).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71-95.
- 신주혜, 정윤경(2016). 한국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에 대한 연구: 합의적 질적 분석을 사용하여. 열린부모교육연구, 8(3), 1-26.
- 신지연(2011). 유아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5(2), 291-312.

- 안지영,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여은진, 이경옥(2011). 유아와 어머니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75-295.
- 이승은(2011). 유아기 정서표현규칙과 정서인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1(4), 121-142.
- 이윤주, 진미정(2013). 영유아기 기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자본과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51(2), 229-239.
- 이자현, 위영희(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33(5), 139-161.
- 이주옥(2008). 영,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61.
- 임현주(20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5(2), 97-115.
- 장유진, 이강이(2014). 영아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부정 정서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4(3), 67-84.
- 조은정, 박형신(2010).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또래유능성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1), 27-48.
- 조형숙, 김명하(201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양육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아상태, 자기분화,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3), 271-293.
- 차삼숙, 신유림(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25(1), 163-181.
- 최연화, 조복희(2013).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323-345.
- 최은숙(2002). 유아의 정서성, 정서 조절, 또래간 인기도와 관계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2(1), 173-187.
- 최효식, 윤해옥, 연은도(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와 우울의 중단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9(3), 119-142.
-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혜경(2013).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3(2), 83-102.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Lutz,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ai, S., Repetti, R. L., & Sperling, J. B.(2016). Children's expressions of positive emotion are sustained by smiling, touching, and playing with parents and siblings: A naturalistic observational study of family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52(1), 88-101.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rryhill, M. B., Soloski, K. L., Durtschi, J. A., & Adams, R. R.(2016). Family process: Early child emotionality, parenting stress, and couple relationship quality. *Personal Relationships*, 23(1), 23-41.
- Buss, A.,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stro, V. L., Halberstadt, A. G., Lozada, F. T., & Craig, A. B.(2015). Parents' emotion-related beliefs, behaviours, and skills predict children's recognition of emo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4(1), 1-22.
- Chaplin, T. M., Cole, P. M., & Zahn-Waxler, C.(2005).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Gender differences and relations to child adjustment. *Emotion*, 5(1), 80-88.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3), 376-395.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rockenberg, S. C.(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giving?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31, 53-73.
- Crockenberg, S. C., & Leerkes, E. M.(2003). Parental acceptance,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sensitivity: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1), 80-93.
- Deater-Deckard, K., & Scarr, S.(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1), 45-59.

- Dunsmore, J. C., & Karn, M. A.(2001). Mothers' beliefs about feeling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117-138.
- Dunsmore, J. C., & Karn, M. A.(2004). The influence of peer relationships and maternal socialization on kindergartners' developing emotion knowledg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5(1), 39-56.
- Fredrickson, B. L.(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300-319.
- Fredrickson, B. L.(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Gelfand, D. M., Teti, D. M., & Fox, C. E. R.(1992). Sources of parenting stress for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of infa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3), 262-272.
- Goldsmith, H. H., Lemery, K. S., Buss, K. A., & Campos, J. J.(1999). Genetic analyses of focal aspects of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5(4), 972-985.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Halberstadt, A. G., Dunsmore, J. C., Bryant, Jr., A., Parker, A. E., Beale, K. S., & Thompson, J. A.(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5(4), 1195-1210.
- Halberstadt, A. G., Dunsmore, J. C., Parker, A. E., Beale, K. S., Thompson, J. A., & Bryant, Jr., A.(200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Unpublished questionnaire.
- Jarvis, P. A., & Creasey, G. L.(1991). Parental stress, coping, and attachment in families with an 18-month old infant. *Infant Behaviour and Development*, 14(4), 383-395.
- McBride, B. A., Schoppe, S. J., & Rane, T. R.(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98-1011.
- Middleton, M., Scott, S. M., & Renk, K.(2009). Parental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s, and behaviour problems in young childre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8(4), 323-336.
- Östberg, M., & Hagekull, B.(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understanding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4), 615-625.
- Park, S. Y. & Cheah, C. S. L.(2005).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24-34.
- Paulussen-Hoogbeem, M. C., Stams, G. J. J., Hermanns, J. M. A., & Peetsma, T. T. D.(2008).

- Relations among child negative emotionality,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sensitive responsiveness in early childhood.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8(1), 1-16.
- Prior, M.(1992). Childhood temperament.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1), 249-279.
- Respler-Herman, M., Mowder, B., Yasik, A., & Shamah, R.(2012). Parenting belief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21(2), 190-198.
- Rodd, J.(1993). Maternal stress: A comparative study of Australian and Singaporean mothers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91(1), 41-50.
- Rodgers, A. Y.(1993). The assessment of variables related to the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5(5), 385-402.
- Rothbart, M. K., Ahadi, S. A., Hershey, K. L., & Fisher, P.(2001). Investigations of temperament at three to seven years: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5), 1394-1408.
- Rothbart, M. K., & Bates, J. E.(1998). Temperament.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3, pp. 106-176). New York: Wiley.
- Sallquist, J., Eisenberg, N., Spinrad, T. L., Gaertner, B. M., Eggum, N. D., & Zhou, N.(2010). Mothers' and children's positive emotion: Relations and trajectories across four years. *Social Development*. 19(4), 799-821.
- Salmon, K., Dadds, M., Allen, J., & Hawes, D.(2009). Can emotional language skills be taught during parent training for conduct problem childre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0(4), 485-498.
- Sameroff, A. J.(1975). Transactional models in early social relations. *Human Development*, 18(1-2), 65-79.
- Sameroff, A. J., & MacKenzie, M. J.(2003). Research strategies for capturing transactional models of development: The limits of the possib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3), 613-640.
-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1), 142-170.
- Scher, A., & Sharabany, R.(2005). Parenting anxiety and stress: Does gender play a part at 3 months of ag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 203-213.
- Sheeber, L. B., & Johnson, J. H.(1992). Child temperament, maternal adjustment, and changes in family life styl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2), 178-185.
- Smiley, P. A., Tan, S. J., Goldstein, A., & Sweda, J.(2016). Mother emotion, child temperament, and

- young children' s helpless responses to failure. *Social Development*, 25(2), 285-303.
- Stevens, Jr., J. H.(1984). Child development knowledge and parenting skills. *Family Relations*, 33(2), 237-244.
- Weinberg, M. K., Tronick, E. Z., Cohn, J. F., & Olson, K. L.(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 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75-188.
- Wilson, K. R., Havighurst, S. S., & Harley, A. E.(2012). Tuning in to kids: An effectiveness trial of a parenting program targeting emotion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1), 56-65.
- Yavuz, H. M., Selcuk, B., Corapci, F., & Aksan, N.(2017). Role of temperament, parenting behaviors, and stress on Turkish preschoolers' internalizing symptoms. *Social Development*, 26(1), 109-128.
- Zentner, M., & Bates, J. E.(2008). Child temperament: An integrative review of concepts, research programs, and measure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Science*, 2(1-2), 7-37.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Beliefs about Emotional Guidance on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motionality and Parenting Stress

Ha, Ji Yo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os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beliefs about emotional guidance on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motionality and parenting stress. The participants were 213 mothers of 3~5 year old children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and Daejeon, Korea.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children's emotionality, beliefs about emotional guidance and parenting stres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gender, age and mothers' age wa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beliefs that children learn emotion by themselves and negatively related to beliefs that parent should coach children's emotion. Also, the relations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of children and parenting stress were significantly moderated by mothers' beliefs about emotional guidance. That is, higher levels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predicted higher parenting stress especially for mothers who believe that children learn emotion by themselv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importance of mothers' emotion related beliefs to reduce parenting stress.